

#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2 | 2024 DECEMBER



## 크리스마스에는 기쁨을: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박해를 견뎌 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 베드로전서 5장 7절 -

칼럼 - 고난 받는 교회의 현황과 세계추세

동역에 감사합니다

박해 받는 아이들의 성탄절

- 루마니아와 모름\_방글라데시
- 에일린\_중앙아시아
- 전세계 아이들의 기도제목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 만들기 활동

박해와 선교현장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Heart To Heart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12월호 | 통권 272호 |

등록번호-증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 후원하기

###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목차

**03 칼럼** - 고난 받는 교회의 현황과 세계추세

**04 동역에 감사합니다**

**05 박해 받는 아이들의 성탄절**

- 루마니아와 모름\_방글라데시

- 에일린\_중앙아시아

- 전세계 아이들의 기도제목

**11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 만들기 활동

**16 박해와 선교현장**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22 Heart To Heart**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 고난 받는 교회의 현황과 세계추세

김성태 목사 (충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고난 받는 교인들의 수효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약 2천 만의 교인들이 심한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교인들이 핍박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의 예언적 경고와 일치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과 악령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서 야수처럼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헬 벨트 지역에서는 호전적인 근본주의 이슬람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교회와 교인들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부르키나파소, 콩고, 에티오피아 동북부 지역에서 이슬람의 테러세력들이 준동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세력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교회지도자를 거짓 증거와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추방하거나 감옥에 수감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8년 신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교회인 삼자교회와 비등록교회인 가정교회는 다양한 통제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국가에서 정한 종교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심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삼자교회 목사가 외부 인사를 만날 시에는 사전에 지역 종교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족교회 목사는 한국인 목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어떤 신앙서적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자교회 목사의 개인 휴대폰은 번호가 자동으로 보고되고, 지역 당국에 입력이 되어서 위치추적과 심지어 녹화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밝힌 대학교수들은 강의안과 강의내용까지 항상 감시가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의 신규 법규정을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심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루빠 조직의 길거리 단속과 검문, 지역 공안당국의 예기치 못한 가택수색 등등은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고, 지하에서 활동하던 중국과 연계된 교인들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수 백명의 교인들이 체포되

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교회를 위협하고, 많은 교회지도자와 교인들이 신앙경주에서 이탈되기도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육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타협과 사역에서의 이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종종 교회의 갱신과 부흥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아프리카 교회지도자와 교인은 그 동안 나태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 운동과 아프리카복음화의 비전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서로 결속하여 온갖 거짓 모략과 함정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물량화 되고, 세속화의 함정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몰아친 핍박과 고난을 중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바라봅니다. 중국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어떤 적대적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지혜롭고 신중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전 세계의 교회의 사랑의 빛을 켜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한국교회는 선교사의 희생과 사랑의 빛을 켜졌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로 인한 한국전쟁 시기에도 한국교회는 전 세계교회의 구호와 구제와 사랑의 빛을 켜졌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가운데 핍박과 고난의 영적 교훈과 유산을 서서히 상실하고,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지체인 핍박 받는 교회와 교인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도약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전세계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 니제르

니제르에는 성경이 부족해 젊은 기독교인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기독교가 국가의 남부,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무슬림인 지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기독교인들과 개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 덕분에 최근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니제르 북부에서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130권 이상의 성경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성경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서 자라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지속되는 압박과 공격의 위협 아래 살아갑니다.

라시다는 성경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신만의 성경은 없지만, 성경읽는 것을 좋아해서 성경이 보일 때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선물 받아 정말 기뻐요.”

도르가가 말하기를, “저는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저에게 이 성경은 삶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같은 것이에요.”

### 라오스

지난해 10월, 라오스의 여덟 기독교 가정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부인하기를 거부하고 집을 샀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지고 마을에서 6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현지 리더들,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은 내쫓긴 가족들을 도와 집을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식량, 건설 장비, 그리고 가정용품을 가지고 왔고, 다른 이들은 땅을 치우고 집을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오픈도어도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지붕을 위한 함석과 벽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재정을 보탬습니다.



\*실제 사진 아님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라오스의 이 지역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대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와 지혜, 그리고 일용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이라크

이라크의 니네베 평원은 특별한 곳입니다. 요나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곳은 ISIS(이슬람국가)에 의해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라크의 기독교는 공격을 아래 있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 덕분에 기독교인들은 이라크의 기독교를 재건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의 오픈도어 파트너가 나누기를, “저희의 목표는 고통 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여 교회와 함께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액 대출로 도움을 받아 이 지역에서 미용사로 있는 파라가 말하기를,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은 저희를 도와주셨고, 곁에서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의 도움은 큰 격려가 되었어요.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도록 해주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도움 (그리고 지금도 이라크의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기도와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몸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 받는 아이들의 성탄절

# 신앙을 이유로 홀로있다

루마나와 모롬\_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소녀 9살 루마나는 홀로 등교하고,  
학교에 가서도 소외되고 홀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소녀와 같이  
박해 받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이 아이들은 홀로 성탄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9살 루마나는 방글라데시 북서부에 위치한 한 학교의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넘어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루마나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소녀는 메모장을 펴고 스스로 만든 게임을 하며 쉬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을 때, 울곤해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루마나는 상심 가득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소녀는 매일 조롱을 당하고 제외를 당합니다. 어느날은 다른 사람들이 소

녀를 계단 아래로 밀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들과 교사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기독교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루마나는 용감하지만 - 무자비한 잔인함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 때면, 저는 상처받은 것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미소지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보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면 울곤해요.”

가까운 마을에서 사는 교회 목사 자녀 모롬은 거절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기분을 알고 있습니다. 소녀는 현지 릭샤(인력거) 운전사에 의해 거부 당해 학교까지 홀로 걸어 다닙니다. 반에서 교사들은 모롬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못 본 체합니다.

“반 친구들은 저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며 괴롭히고, 때로는 저에게 벽돌을 던지기도 해요. 그들은 제가 이 슬람으로 돌아가면 같이 놀겠다고 말해요.”



## 박해의 현장

이것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가슴 아픈 박해의 현장입니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의식적으로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박해에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고, 그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평생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 베드로전서 5장 7절 -

루마나는 결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이 불에 타고 지붕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저희 마을에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너무나 속수무책이었어요.”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90%가 무슬림이며 명예에 기반한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가정을 돕는다면 똑같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루마나의 가족은 화재로 소유를 거의 다 잃고, 갈 곳이 없어 마당에 헛간을 짓고 거기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루마나와 모롬과 같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 회복력있는 믿음

루마나가 말하기를, “저희 엄마는 사람들이 계속 저를 괴롭힐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

루마나는 자신에게 상처 입힌 아이들을 용서할 만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들에게 분노해야 하죠? 저는 그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요.”

이같은 회복력은 격려가 됩니다 - 그러나 도움 없이는 루마나와 모롬과 같은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홀로 있고, 소외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단절되어 있다면 어떻게 매일같이 당하는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교회의 미래가 위협에 처했습니다.

## 성탄절의 기쁨

오픈도어는 전세계 박해 받는 아이들에게 은신처, 트라우마 상담, 구호, 그리고 아이들이 희망과 미래를 품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는 아이들이 홀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 특히 성탄절에 말입니다.





성탄절은 우정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몇 안되는 순간입니다.

루마나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외치기를, “저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모롬이 덧붙이기를, “저희 교회는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과 노래, 춤,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읽곤 해요. 저희는 새옷을 입고, 케익을 자르고 함께 나눠요.”

매일 같이 신앙을 이유로 거절을 마주하는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우정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박해 받는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를 통해 루마나와 모롬과 같은 아이들은 외로움과 박해를 잊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루마나가 말하기를, “저는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는 옳은 길에 서있다는 것을 알아요.”



성탄절에는 모롬과 같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이번 성탄절에 박해 받는 아이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시겠어요?



### 선물해주세요

**40,000원**으로 10명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선물해 믿음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60,000원**으로 소외된 아이에게 특별한 성탄절 모임을 열어주어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120,000원**으로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의약품, 필수품, 그리고 은신처와 같은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정기후원 선택



[자동이체 신청하기]

###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입금하실 때 성함 뒤에  
'성탄절' 이 세 글자를 추가 해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 기도해주세요

- 루마나와 모롬이 등하고 할 때를 비롯해 학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소녀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용기가 힘 있는 간증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 전세계 박해 받는 아이들이 특별히 성탄절 때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 '온 세상이 기념하죠'

박해 받는 성도이자 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청소년인 에일린\*의 삶은 힘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성탄절은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에일린\*은 친척들로 부터 박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소녀가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있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며 부모님과 형제들과 식탁에 둘러앉은 에일린\*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성탄절은 이 가족이 함께 기념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에일린이 말하기를,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요. 저희는 요리도 하고 게임도 하죠. 온 세상이 기념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이날을 정말 좋아해요.”

성탄절에 기뻐하는 에일린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그외의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이죠. 에일린의 부모는 청각장애인인데,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에서 이는 알라의 저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박해가 극심합니다.

## 어리고, 박해 받고, 홀로인

에일린은 어릴 때 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청소년이 되며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녀를 홀로, 소외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런데 친척들이 저를 막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단속하게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어요.”

##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에일린은 그녀를 방어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청각 장애인이셔서 들을 수도 말씀하실 수도 없었어요. 친척들은 씨족에 따라 저도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루는 새벽 6:30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깰었습니다. “저는 나오자 마자 놀랐어요. 15명 이상의 경찰들이 문앞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저와 엄마, 그리고 형제들 뿐이었어요. 저는 저희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을 불러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들은 안된다고 했죠.”

경팔은 집에서 기독교 서적을 발견했고 에일린과 어머니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심문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 ‘강한 성도’

에일린과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기소없이 풀려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이 용감한 소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도움은 성탄절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픈도어 파트너들과 같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오픈도어 파트너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고, 저희는 함께 기도하죠. 저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오픈도어를 통해 굳건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음을 말할 수 있어요.”



## 기도해주세요

- 이번 성탄절이 에일린과 소녀의 가족들을 위해 기쁨과 교제,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에일린에게 청각 장애인 부모님을 돌보고 지역사회의 잔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박해 받은 어린 성도들이 홀로가 아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인물의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국가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아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들어보세요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유튜브 채널 검색 후 영상 시청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 여러분의 기도는 아이들의 기쁨입니다

박해 받는 아이들은 매일같이 위험, 학대, 그리고 거절을 직면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그들이 홀로있지 않음은 의미합니다...

이름 나이 국가  
세피데\* 13 이란



## 상황

### 3년전 엄마와 함께 기독교인이 됨

13살 세피데\*는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로 소녀의 아버지는 폭력적으로 변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는 이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가끔 저는 아버지가 변한 이유가 궁금해요. 왜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일까요?”

세피데의 어머니는 싱글맘으로 삶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와 세피데는 최근 다른 나라에서 열린 기독교 회의에 비밀리에 참석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 세피데가 이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세피데와 어머니에게 그들을 사랑해 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세피데와 어머니는 오픈도어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녀가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실제 사진 아님

이름 나이 국가  
줄리\* 14 이집트



## 상황

### 반에서 유일한 기독교인

줄리\*가 11살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울리지 못할거라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반에서 유일한 기독교인 여학생이었어요. 다른 여자 이들은 전부 이슬람식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극단주의 무슬림들이었어요. 같은 반 학생은 저의 신앙을 이유로 저를 살해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성탄절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증오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는 적응하고자 했지만 외로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느꼈어요.”



줄리는 이제 오픈도어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리는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 기도해주세요

- 줄리의 믿음과 자존감이 회복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녀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줄리와 소녀의 가족이 전세계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며 이번 성탄절에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를 기도해주세요.
- 주님께서 줄리 학교에 있는 청소년 여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어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장식을 걸어 놓고  
박해 받는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성탄절의 아이들

점선에 따라 오려주세요,  
구멍에 끈을 넣어 묶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주세요.

 **OpenDoors**





##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남았어요.”

루마나, 9살, 방글라데시



한국오픈도어  
선교회 방문



성탄절의 아이들

 **OpenDoors**





# 성탄절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을 이유로 소외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루마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9살의 루마나는 신앙을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제외를 당했습니다. 소녀는 학교에서 태연한 척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울곤 합니다.

루마나가 괴롭힘을 견디며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소외되고 취약한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선물하기]



# 여러분 덕분에 성탄절의 기쁨을 누립니다

성탄절에는 루마나와 모롬이 홀로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이 특별한 날, 소녀들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방글라데시에서 심한 조롱, 거절, 그리고 소외 당하던 삶을 잊고, 그들과 같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념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진짜 어린이가 될 수 있는 날이죠.

박해 받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익을 자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게  
정말 즐거워요.” - 모름



“저는 성탄절을 기념하는게 정말 좋아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노래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케익을 자르고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루마나, 9살, 방글라데시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이번 성탄절에  
박해 받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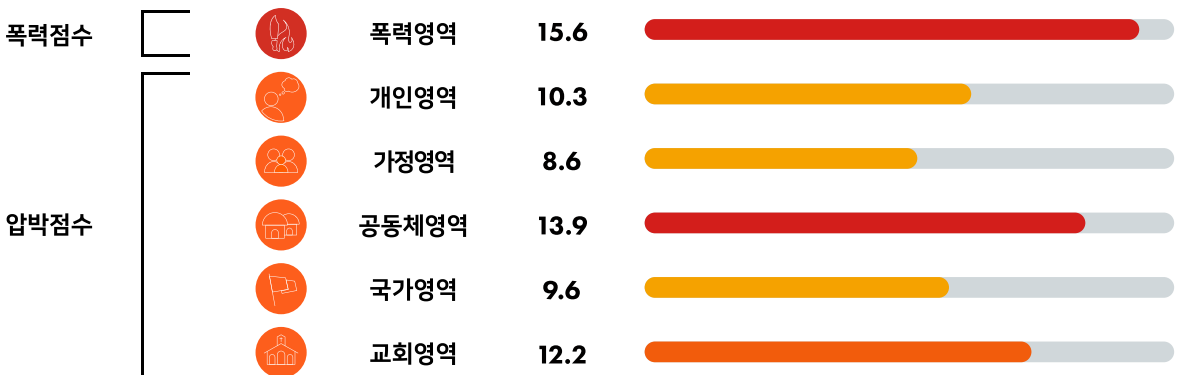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28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 중요한 발견

이미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AR)은 이웃 나라 수단의 위기로 인해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선거 지연으로 인한 수단의 또 한 번의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조짐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취약한 상황에 우려스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수단의 내부 분쟁의 파급으로 인해 CAR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기독교인과 같은 취약 계층이 처할 위험은 증폭될 수 있다. 현재 법과 질서의 붕괴로 무정부 상태와 불처벌이 만연한 수준까지 이르렀고,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신앙 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무장 세력은 교회 건물을 불태우고 약탈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 이런 폭력에 맞서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안전을 위해 카메룬과 같은 이웃 국가로 떠나야 해야 했다. 통치력과 법치의 부재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국내 피난민이 되어 임시 수용소로 강제 이주되어 집과 생계 수단을 잃었다. 이는 또한 국지적 형태의 박해가 가능한 온상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CAR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사회적 배척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며 가족들은 자신의 새로 찾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요한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 국가 정보

지도자 : 포스틴 아르상제 투아데라 대통령

인구 : 5,017,000 명

기독교인 수 : 3,712,000명<sup>1</sup>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공화국



©Alamy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3,807,000	74.4
이슬람교	711,000	13.9
불가지론	548,000	10.7
바하이교	38,100	0.7

출처<sup>2</sup>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AR)은 1960년 독립 이후, 무장 단체와 종교 및 민족 단체, 그리고 목축업자와 농민 사이에 긴장이 겹치면서 폭력의 수렁에 빠졌다. 주로 무슬림 집단인 셀레카 (Seleka)는 2013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종교적, 민족적으로 치명적인 분쟁을 일으켰다.

2016년 투아데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는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9년에 정부와 14개 무장 단체 간에 정치 평화 협정을 체결했지만 (AP 뉴스, 2019년 2월 2일), 2020년 12월 선거를 앞두고 이 협정은 결렬되어 이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오직 수도 방기 (Bangui)만 통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박해에 대한 추적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국가 대통령에 의해 총선에 대한 새 헌법이 제시되면서 국민들의 우려는 높아졌다. 나라 안에 르완다와 바그너 용병 단체가 존재하며 그들의 영향력과 힘이 키우고 있고, 차드 군대도 또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많은 무장 단체들은 다른 단체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며, 어떤 단체는 샤리아 국가로 세우기 위해 싸우는 외국인 용병들도 있다. 주로 셀레카 (Seleka) 출신 무슬림 세력과 반 발라카 (anti-Balaka)라고 불리는 자위 단체와 관련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반 발라카는 때로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지만, 대부분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따르고 있으며 교회는 이들과 강력하게 선을 긋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불의에 반대하는 말을 하거나, 확장되고 있는 강력 무장 범죄 조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16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의 관계는 합리적이지만 일부 긴장은 있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인권이 침해 받고,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셀레카 출신의 단체들에 의해 차별과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다. 반 발라카 (anti-Balaka) 반군

<sup>1</sup>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sup>2</sup>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단체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공격한다. 여성들과 소녀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의존하므로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그들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수단과 남 수단의 대규모 분쟁이 다시 발생할 조짐과 위협으로 인해 또 다른 혼잡이 우려된다. 이것으로 CAR는 분쟁 중인 국가들에 휘말려 자국의 불안정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국제 구호 단체들은 여러 분야의 불안정과 인권 침해를 다루기 위해 여러 곳에 포진하고 있다.

가장 큰 종교 집단은 로마 가톨릭이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은 무슬림이 지배적이고 셀레카 분파 단체가 활동하는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가장 심하다.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 지수의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로마 가톨릭은 국내 가장 큰 종파로 넓은 교회 연결 망, 병원과 학교를 가지고 있다. 셀레카 쿠데타 기간과 이후에 많은 교회가 약탈당했다. 가톨릭 교회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높였으며, 무슬림과 기독교인 모두 공격을 피해 도망하는 민간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들은 개종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가족에게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라는 반대와 압박을 받는다. 특히 북부의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이슬람 선동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단은 셀레카 출신 (ex-Seleka) 무장 세력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독교 회중에 합류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 이슬람의 탄압

특히 셀레카 무장 단체의 분파에 의해 자행되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외에도, 이슬람의 탄압은 주로 무슬림이 많은 지역의 사회 전반에서 박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조직적 부패와 범죄

이런 박해의 동력은 특히 안티 발라카 무장 세력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에 있다. 안티 발라카는 자경단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범죄 조직으로 변했다. 특히 수도 방기 (Bangui)에서 그들은 종종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특히 자신들의 이상을 따르지 않거나 그들의 폭력

적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슬림이나 기독교인 모두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수년에 걸쳐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 종족 억압과 혼합된 민족 종교적 적대감

이 박해의 중심에 두 가지 차원이 작용한다. 1) 정령 신앙 (종교적/문화적) 2) 부족간의 분쟁. CAR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족적 동기와 종교적 동기가 함께 작용하고 일부 소수 민족 집단은 표적이 된다. 예를 들어, 바아족 (일명 피그미족)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반 발라카 단체는 때로 기독교인을 강제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수년 간의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독교인 여성들과 소녀들은 강간, 인신매매, 납치, 강제 결혼에 특히 취약해졌다. 종교적 박해의 형태로 성적 학대는 수치심, 트라우마, 임신으로 이어진다. 성폭력 비율이 높은 고 위험 지역의 부모들은 여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여성들이 가족에게 받는 박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이슬람 복장 규정을 강제로 지키게 하며,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택연금과 무슬림 노인 남성과 강제 결혼을 당하기도 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 연결망 접근 거부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종교 복장 규정 시행
- 강제 결혼
- 표적 유혹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 남성

남성은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거나 급진 무장 단체에 구금될 수 있다. 목사들은 특히 표적이 되어 거짓 누명을 쓰거나 교회 예배 중에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든 시장을 점령하고, 매매를 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기독교 사업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남성은 직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때로 기독교인의 상점은 약탈당하고 빈곤에 빠지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은 반군 무장 단체에 강제로 끌려가 고문과 폭행의 표적이 된다. 납치, 살해, 협박, 그리고 남성들에게 빈곤함을 전술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기독교인 가정에 크게 영향을 준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상속 또는 소유 박탈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 / 무장 민병대 징집으로 양심에 반하는 징집
- 폭력 - 살해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28	70
2023	24	70
2022	31	68
2021	35	66
2020	25	68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박해 점수는 2023년과 동일하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여러 파벌 간의 분쟁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
- "종교 단체는 최소 1,000명의 회원이 있고 지도자가 적절한 종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1,000명 미만의 기독교인 단체는 인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표적 폭력의 결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안전을 찾아가야 한다.

월드와치리포트 연도	구금을 당한 기독교인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	살해당한 기독교인	공격 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 건물
2024	1000*	1000*	23	14
2023	1000*	100*	61	11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 개인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개종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심각한 침해와 재정 지원 중단을 겪는다. 셀레카 분파인 무슬림이 지배하는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 자료를 소유하는 것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전직 셀레카 무장 세력은 집에 들어갈 때 누군가 성경을 읽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살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족 영역

배우자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그의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종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가족 상속권을 잃게 된다. 반군 단체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부모가 살해된 경우나 강제로 피난을 떠나고 자녀들이 남겨질 경우에, 그 남겨진 아이들은 공격자들의 손에 넘어 가고, 일부는 잔인하게 살해당하기도 한다.

### 공동체 영역

정부는 여러 지역에서 이미 통제권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 특히 샤리아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겪는다. 일부 반군 단체와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 받는 감시는 흔한 일이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기독교인들, 특히 어린 소녀들은 공격과 납치로 고통을 당한다. 무슬림

공동체는 보통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함께 의료 시설과 같은 사회 자원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북부의 외딴 지역에서 더욱 일어난다.

### 국가 영역

셀레카 무장 세력이 지배하는 지역에는 무슬림이 모든 교통 시설을 통제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폭력이 발생하면 목회자들은 특히 더 취약해진다. 반군 단체가 휘두르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당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아 집과 나라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 교회 영역

정부는 공식적으로 감시를 하지 않으나, 각종 반군 단체들이 민간인들을 감시하여 그들이 다른 단체와 연결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불에 타는 등 많은 공격이 보고되고 있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 협약(CAT)
4. 여성차별 철폐 협약(CEDAW)
5. 유엔 아동권리 협약(CRC)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 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고있다.

-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버리도록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압박을 경험한다 (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활동은 반군 단체들에 의해 감시를 당한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논하거나 전도에 참여하는 경우,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다 (ICCPR 제18조, 제19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납치를 당하고 무슬림 남성과 강제 결혼을 당할 위험을 가진다 (ICCPR 제23조, CEDAW제16조, ICESCR 제10조))

## 이외 소수 종교집단의 상황

미국 국무부에서 (IRFR 2022) 발표한 바는: "나라의 중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바그너 단체가 싸우는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무슬림 민간인들이 표적이 되어 일부는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었다고 국제 및 현지 감시단이 보고하였다."

## 오픈도어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역

오픈도어는 지역 협력자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수년 동안 CAR사역에 참여하여왔다. 2013년부터는 2013년 3월에 일어난 셀레카 무장 세력으로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교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역하였다. CAR 비전은 성숙하고 자율적이며 상흔과 핍박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핍박 대비
- 경제적 안정
- 트라우마 치유





Mission  
Bible  
College

# 성경대학시리즈

##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제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